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오늘 개막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사할

21일까지 다양한 문화·체험·공연 등 전 세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 선사

장수군은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장수 의암공원과 누리파크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정 고원에서 자란 한우와 사과를 비롯한 토마토, 오미자 등 장수를 대표하는 레드푸드를 총망라해 장수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와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형텐트와 2,500석의 좌석을 마련해 '한우마당'의 규모를 키워 군민과 방문객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장수한우를 즐길 수 있다는 점과 명품 장수사과를 한 공간에서 만나고 맛볼 수 있도록 별도로 '사과마당'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메인 무대 관람석 1,000석 규모 차양막 설치, 실내체육관 무더위 쉼터 운영, 포토존 확대, 야간 불꽃놀이 등 편의시설과 볼거리를 강화했다. 축제장에서는 장수 한우를 직접 구워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포스터

맛볼 수 있는 '한우마당', 제철 호프사와 다양한 품종을 선보이는 '사과마당', 장수의 대표 특산물인 한우,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으로 만든 특별한 레드푸드 메뉴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레드푸드존'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전문 셰프와 함께하는 '레드푸드 요리 만들기', 가족이 함께 즐기는 '아빠와 함께하는 토마토스파게티', 사찰음식 장인 정효스님과 함께하는 '레드푸드 사찰음식 만들기' 등 장수 레드푸드 축제의 정체성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올해 축제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추억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7080세대를 위한 낭만콘서트를 시작으로 축제의 포문을 여는 개막 축하콘서트와 활력이 넘치는 레드콘서트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폐막콘서트와 불꽃놀이가 펼쳐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

또한 방문객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공무원과 경찰,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더욱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특별전담팀 꾸려 사업 시행 계획 마련·조례 제정

무주군은 17일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회의를 개최,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인홍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전담팀(TF팀) 단장(무주군수)을 비롯한 최정일 부군수와 이종현 행정복지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신상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기획조정실과 인구활력과,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등 관련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기본소득 연계 지역 내 순환 경제 체계 구축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 가능성 제고, △지반비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날 취합된 의견들은 해당 분야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13일까지 '무주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사업계획서'에 담을 예정이다.

또한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 중으로,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는 군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등의 기본소득 지원 목적을 비롯해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위원회 설치 등 총 14개 조항과 부칙이 담겼다.

황인홍 단장(무주군수)은 "무주군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주사랑상품권' 지원 사업 전격 시행, 농촌인구 전담 부서 편성,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동참의지 등 시범사업 성공 추진의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라며 "철저한 준비로 전라안보산업 중심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무주군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내실을 다지고 밖으로는 관련 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유치 의지와 담의성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루라 진안군의원, 예산편성 방향 등 군정질문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 이루라 의원은 지난 1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태건강치유도시 육성'과 '진안군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진안군 예산편성 방향' 등 5개 분야의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루라 의원은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건강치유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치유관광 5개년 종합계획 내용, △점북특별자치도 산악관광 조성 사업 대응 결과 △진안고원산림치유원 개원에 맞춘 생태건강치유도시 연계 추진 상황 △전북치유관광산업지



구 지정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질문을 펼쳤다.

이어 "우리군은 65세 이상 비율이 40%로 초고령화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진안군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 관련 계획과 기존 진안군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체계에 대해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하여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필수 분야 사업의 우선 투자 방안과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구상과 대책, 마령면 가축분뇨 유출과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한 후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 군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군정질문을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 이탈리아 K-Shop 입점·홍보관 계약 성사

사)진안군천환경홍삼한산업클러스터사업단(단장 김정배, 이하 사업단)은 17일 "진안홍삼 브랜드의 이탈리아 파도바 K-Shop 입점 및 홍보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8월 바티칸 수도원 음베르토 나르티 박사의 진안군 방문 이후 진안홍삼 브랜드의 유럽지역 진출에 대한 빠른 대응의 일환으로 CaoASIA 법인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사업단은 CaoASIA 현지법인(강광배 교수)과 이탈리아 파도바 지역에 12월 초 K-Shop 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홍보관 설치를 앞두고 진안홍삼 해외 브

랜드 사용에 대한 계약과 제품 공급 계약을 완료하고 현지 입지 및 세부적인 매장 점점을 완료했다.

이탈리아는 현지 한류 확산에 따른 K-상품 진출 기회가 높은 국가로 유럽 29위 제조업 강국이자 4대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령화 및 면역력 등에 관심이 높고 한류의 확산으로 K-홍삼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행조사 계획 승인 등의 심사를 위해 1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7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17일 1차 본회의에서는 유경자 의원의 「폐의약품 안전수거 체계 구축 정책 제언」, 김남수 의원의 「생활인구를 통한 지역 소멸위기 극복 방안」, 한국회의원의 「양파재배 전면 기계화 추진과 인력난 해소 위한 지원 촉구」, 이종섭 의원의 「장수군 중·장년층 지원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시

작으로 하여,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관리계획안과, 김남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이어 군의회는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행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장정복 의



원, 부위원장에 김광훈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국회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종섭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아울러 유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달빛내륙철도 장수노선 상향 및 지선 철도 연결 촉구 결의안」과 김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의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연계 장수물 포인트 적립 이벤트

장수군은 장수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장수물'에서 제19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기간인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장수물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사과마당과 농특산물 판매전에서 농특산물을 구매한 뒤 안내부스로 영수증을 제시하면 사은품 또는 장

수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행사다. 구매 금액은 사과마당과 농특산물 판매전 내 전체 금액을 합산해 인정하며, 5만원 이상 구매 시 타포린백 또는 보온보냉백 중 한 가지 사은품을 증정하고,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사은품과 함께 장수물 포인트 1만원이 적립된다. 포인트는 최대 5만원까지 제공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찾아가는 특이민원 대응 교육 실시

무주군이 17일 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특이(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무주군청 인허가 등의 민원 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이용범 특이민원 시민 담당관이 진행하는 "민원 예방 및 해결 방법, 민원 응대 자세" 등의 강의를 들었다.

강사는 권익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실제 민원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고충 상담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직원들은 "일보다도 도를 넘는 악성 민원을 때문에 힘든 순간들이 있다"라며 "오늘 교육은 경험이 담긴 실제 사례들이라 더 현실감 있게 와 닿았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훈련, 심리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각 읍면지체적으로 한 현장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마이산 탐사, 진안홍삼축제 기간 관람료 전액 면제

한국불교대교종 마이산탐사(주 지 진성스님)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25년 진안홍삼축제 기간 동안 축제 방문객들이 진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탐사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축제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마이산의 독특한 자연 경관과 탐사에 담긴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탐사 관계자는 "진안홍삼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진안의 상징적인 명소인 마이산 탐사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관람료 면제를 결정하게 되었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마이산의 풍광과 탐사에 담긴 깊은 역사, 문화, 종교적 의미를 직접 느끼고, 진안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다 가깝고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